

II. 남북국 시대의 전개

주제 12) 고려의 광종과 성종의 업적

학 교	
학 번	
이 름	

1. 고려 태조 사후 나타난 혼란

- 왕위를 둘러싼 왕건의 후손들 등에 업은 외척들의 갈등으로 왕권이 약화 - 혜종이 2년만에 병으로 죽으면서 왕권 약화가 가속화	정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새롭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()으로 천도를 계획했으나 실패하였고 정종은 4년 만에 죽음

2. ()의 즉위와 개혁정책

1) () : (인안, 광덕, 대흥, 건흥, 준풍)이라는 연호 사용

2) ()의 실시

① 내용:

② 기대효과

- (귀족 / 권문세족 / 호족)의 (정치적 / 경제적 / 군사적 / 문화적) 기반 (약화 / 강화)

3) ()의 도입

① 중국의 관리등용 제도인 ()을(를) ()의 건의로 수용

② (혈통 / 시험)에 따른 인재선발로 (가문이 좋은 / 실력있는) 인재선발

⇒ (가문이 좋고 / 능력있고) 국왕에게 (대항하는 / 충성하는) 인재선발 가능

4) 호족, 공신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단행

* 아래 그림 중 왼쪽 내용에 들어갈 적절한 그림을 붙이세요.

* 관련없는 내용은 여기에 붙여주세요.

2. 성종의 즉위와 활동

- 1) 광종이 죽은 뒤 경종이 즉위하자 일시적으로 광종의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남.
- 2) 경종이 죽은 뒤 성종이 즉위하면서 국가의 각종 제도를 정비

① 중앙정치제도: () 실시	② 지방제도 정비
③ 빈민 구제를 위한 () 설치	④ 물가조절기구인 () 설치

관련없는 그림은 여기에
접쳐서 붙여주세요.

- 3) 국가의 정치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고위 관리들에게 시무책을 올릴 것을 명령. 그 중 ()의 () 채택

① 5조정적평: 성종 이전의 왕들의 업적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작성한 글

* 다음 왕과 5조정적평에 들어가 있는 왕들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.

태조	●	●	○ 이전 왕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해방된 노비 중 일부를 다시 노비신분으로 환원하는 정책 실시 ○ 정치의 원칙을 알지 못하여 권력있는 신하에게 정치를 맡김
혜종	●	●	○ 초기에는 아랫 사람을 예로써 대접,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음 ○ 쟁기를 등용한 후로부터 재주없는 자들이 부당하게 등용하며 지나치게 국왕 중심의 정치를 실시 ○ 불교를 지나치게 믿어 국고를 낭비, 말년에는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임
정종	●	●	○ 태자 시절에는 스승을 존경하고 관리들을 잘 대우 ○ 이후 의심이 많아져 좌우에 항상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으며 장졸들에게 상벌을 균등히 하지 못하여 2년 만에 병사
광종	●	●	○ 왕실의 반란이 있을 것을 막아 고려를 유지 ○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였고 이를 왕의 고집대로 밀어붙임
경종	●	●	○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후한 덕과 넓은 도량으로 후삼국을 통일한 사실을 높이 평가 ○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예로써 큰 나라를 섬겼으며 도의로써 인접 국가와 사귀고 아랫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하게 대함

※ 다음 중 시무 28조의 내용을 옳게 기록한 내용에만 체크를 해봅시다.

- ☐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교를 바탕으로 삼고, 수양을 하는 데는 불교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.
- ☐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는 백성들의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.
- ☐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므로, 중국의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식대로만 고집해야 한다.
- ☐ 지방 호족들이 땅을 다스리게 내버려 두지 말고, 중앙에서 직접 관리(지방관)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.
- ☐ 왕은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지 말고, 신하들과 의논하며 정치를 해야 한다.
- ☐ 지나치게 화려한 궁궐 장식이나 옷차림을 줄여서 나라의 재정을 아껴야 한다.
- ☐ 지나치게 많은 사원을 짓는 것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.
- ☐ 유교를 '나라를 다스리는 근본(치국)'으로 불교를 '수신(몸을 닦는 것)'의 근본으로 보아 유교와 불교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.
- ☐ 임금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할 것을 강조하였다.

()에 담겨있는 정치적 입장(※ 해당되는 그림에 체크표시 해주세요.)

◦ 유교와 불교에 대한 입장



◦ 불교행사에 대한 입장



◦ 중국 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



◦ 왕과 신하와의 관계

